

7월 28일, 언론중재법 시행

지난 1월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언론중재법 시행과 함께 기존의 중재제도가 조정과 중재로 분리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조정(중재)대상매체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며, 서면 외에 구술 및 전자우편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정권고 대상이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서 방송과 인터넷신문으로까지 확대되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시정권고신청도 가능해진다.

한편, 사무처는 새 법 시행에 따라 사무처 조직을 2본부 1센터 9팀으로 개편하고, 관련 규칙과 기준 등을 개정했다. 또한, 사무실과 회의실을 확충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새 언론피해구제제도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 준비를 완료했다.

김용주 신임 사무총장 임명



조준희 위원장은 7월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김용주 전 중재심의실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김용주 사무총장 이력〉

- 언론중재위원회 입사(1986), 기획부장, 기획실장, 중재심의실장
- 서울지방법원 근무
- 서울시립대 대학원 법학과(언론법 박사 과정)
-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졸
- 경기대 법학과 졸

회지 DB 구축완료

위원회는 최근 회지 「언론중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1981년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언론중재」에 수록된 언론법제 관련 연구논문 및 국내외 판결례 등 다양한 자료를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됐다(창간호부터 1999년 여름호까지는 주요 수록내용, 1999년 가을호부터는 모든 수록내용 검색 가능).



신입직원 채용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시행을 앞두고 상근 변호사 2명을 비롯, 모두 10명의 신입 직원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했다. 이들은 7월 1일부터 약 한 달 간 업무수습 교육을 받은 후 지난 8월 3일자로 각 부서에 인사 배치됐다.

위원회 광고제작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변화되는 언론중재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새로 광고를 제작, 7월 말부터 신문과 잡지를 시작으로 TV, 라디오, 인터넷 배너,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장소 : 프레스센터 15층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전화 : (02)397-3000, 3010, 3100)

위원회 인사 단행

위원회는 사무처의 조직개편에 따라 8월 3일 인사를 단행했다.

- | | | |
|--|-----------------------|--------------------|
| • 조정심의본부장 오 광 건(승진) |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본부장 임 병 국 | • 운영본부장 권 우 동 |
| - 조정1팀장 장 원 상 | - 법무상담팀장 양 재 규 | - 기획혁신팀장 심 영 진 |
| - 조정2팀장 이 주 관 | - 교육홍보팀장 박 재 선 | - 예산회계팀장 이 미 경(승진) |
| - 심의팀장 권 오 근 | - 조사연구팀장 김 일 경 | - 총무팀장 강 현 석 |
| • 전문위원 이 진 숙 | | |
| • 부산사무소장(직대) 여 윤 규 | • 대구사무소장 여 종 국 | • 광주사무소장 정 희 성(승진) |
| • 대전사무소장 임 득 상 | • 경기사무소장 황 정 근 | • 전북사무소장 조 남 태(승진) |
| | | • 경남사무소장 손 정 배 |
| • 3급 승진 : 류 석 창(조정1팀), 최 영 훈(조정2팀), 안 백 수(심의팀) | | |